

석사학위논문

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

지도교수 허철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송은주

2003년 8월

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

지도교수 허 철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송은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3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문 초록>

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

송 은 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지도교수 허 철 수

본 연구는 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관계가 있는가를 밝혀 대인문제 해결사고를 높일 수 있는 가정환경 변인을 알아내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가정의 집단 성격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 둘째,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가정의 심리적 과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 셋째, 긍정적·부정적 대안적 해결사고는 가정 환경과 상관이 있는가?

위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제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 223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로는 아동의 가정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정원식(1989)이 제작한 가정환경 진단 검사(국민학교 고학년용)에서 가정의 집단성격과 가정의 심리적 과정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가정의 집단성격에서는 부모에 대한 역할기대, 가족 상호간의 태도, 가족의 응결력 등 3가지 변인을, 가정의 심리적 과정에서는 성취-비성취,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 등 4가지 변인을 측정하였다.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Spivack(1976)의 ICPS(Int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test)와 이를 토대로 채점 기준 및 이야기 내용들을 수정한 Pellegrini(1985)의 MEPS-R을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맞게 번역한 양진희(1992), 박희숙(1995)의 것을 사용하였는데, 대안적 해결사고와 결과예측사고의 2하위 요인을 측정하였다.

* 본 논문은 2003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검사 후 연구자가 채점한 것을 전산처리 하였으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을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가정환경 중 가정의 집단 성격에 따라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차이가 있다. 특히 결과예측사고에서 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가정의 집단성격 중 가족 구성원간의 태도가 긍정적이고 가정의 응집력 정도가 응결될수록 아동은 결과예측사고를 더 많이 하고 있다.

둘째, 아동의 가정환경 중 심리적 과정에 따라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차이가 있으며, 가정의 심리적 과정이 높은 환경의 아동이 대안적 해결사고와 결과예측사고를 더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친애적, 자율적 집단이 거부적, 타율적 집단보다 대안적 해결사고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셋째, 가정의 집단성격과 심리적 과정에 따라 긍정적·부정적 대안적 해결사고는 상관성이 있다.

즉, 부모에 대한 역할 기대, 가족 구성원간의 태도, 가정의 응집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대안적 해결사고를 하고, 낮을수록 부정적 대안적 해결사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환경이 친애적, 자율적일수록 긍정적 대안적 해결사고를 하고, 거부적, 타율적일수록 부정적 대안적 해결사고를 하고 있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가정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대인문제 해결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상관을 갖는 가정환경 요인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4
3. 연구의 제한점	6
II. 이론적 배경	7
1. 가정환경의 개념과 구성 요소	7
2. 가정의 심리적 환경	11
3.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개념과 접근방법	14
4. 대인문제 해결사고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21
5. 심리적 가정환경과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	24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27
1. 연구의 대상	27
2. 측정 도구	27
3. 자료 처리	31
IV. 연구 결과 및 해석	32
1. 가정의 집단 성격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차이 검증	32
2. 가정의 심리적 과정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차이 검증	36
3. 심리적 가정환경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대안적 해결사고의 관계	42
V. 요약·결론 및 제언	45
1. 요약	45
2. 결론	50
3. 제언	52
참고 문헌	53
Abstract	57
부 록	60

표 목 차

<표 III- 1> 가정환경 검사 도구의 문항 및 신뢰도	28
<표 III- 2> 대인문제 해결사고 검사의 구조	29
<표 III- 3> 대인문제 해결사고 검사 반응의 범주와 배점	30
<표 III- 4> 채점자간 동의율 산출 공식	31
<표 IV- 1> 부모에 대한 역할 기대 정도별 대인문제 해결사고	32
<표 IV- 2> 가족 구성원간의 태도 정도별 대인문제 해결사고	33
<표 IV- 3> 가정의 응집력 정도별 대인문제 해결사고	34
<표 IV- 4> 가정의 집단성격 전체의 정도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 ..	35
<표 IV- 5> 성취-비성취 정도별 대인문제 해결사고	37
<표 IV- 6> 개방-폐쇄 정도별 대인문제 해결사고	38
<표 IV- 7> 친애-거부 정도별 대인문제 해결사고	39
<표 IV- 8> 자율-타율 정도별 대인문제 해결사고.....	40
<표 IV- 9> 가정의 심리적 과정 전체의 정도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 ..	41
<표 IV-10> 가정의 집단성격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대안적 해결사고 ..	42
<표 IV-11> 가정의 심리적 과정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대안적 해결사고 ..	43

부 록 목 차

<부록 1> 대인문제 해결사고 측정 설문지.....	61
<부록 2> 가정환경 측정 설문지	63
<부록 3> 대인문제 해결검사 반응 범주	6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해 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사회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인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 기분, 동기, 의도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한 Piaget의 견해에 따르면,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자아와 성격의 발달에서 자기 중심성의 감소, 즉 탈중심화 기능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인관계를 통해 아동은 타인의 행동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의도나 느낌을 의식하게 되는 상호성을 키움으로써 성격발달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유인이, 1997, 재인용).

아동은 부모, 형제, 친구, 교사 등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과 이루어지는 대인관계를 통해 삶의 양식을 익히고 적응해 가는 과정 속에서 아동은 여러 문제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나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반복된 경험 속에서 문제 해결의 기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요즘의 아동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의 팽배로 타인의 입정보다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고, 또래와 상호작용 하는 기회도 적다. 그리고 우리의 교육은 지식 위주와 학력 지향의 교육으로 아동들이 교육을 통해 대인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편이다. 이로 인하여 아동들은 타인과의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몰라 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Selman 등(1984)의 연구에서 사회적 능력과 대인문제 해결 능력간에 밀접

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주어진 대인문제를 해결하려는 아동의 방안이 자기 중심적이고 일방적인 형태의 내용일수록 그 아동은, 제 3자적 입장에서 상호적인 형태의 방안을 보이는 아동에 비해 인기도가 낮고 부적응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박찬옥, 1986, 재인용).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 유아의 대인관계 수준이 현재는 물론이고 유아의 심리적 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였고, 유아기 때 대인관계 기술의 결함이 있으면 청소년 후기나 성인 초기까지 지속된다는 연구(Coie와 Douge, 1990 ; 이선희, 2000, 재인용)와 지적인 면에서 보다는 사회적인 면에서의 무능력이 유아의 학업 실패 뿐 아니라 반사회적 행동을 낳고 나아가서는 성인기 사회 부적응의 원인이 됨을 추정한 연구도 있다(박찬옥, 1986 ; 남익우, 1994).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필요한 중요한 능력이며 대인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의 창출은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아동의 가정환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Spivack(1974)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부모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대인적 문제 장면에서 부딪혔을 때 해결 방안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Shure(1978)는 부모와 아동과의 상호활동 장면에서 대인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고하는 능력인 매개 기능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였다(문희인, 1989,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대에 들어와 대인문제 해결사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박찬옥, 1986 ; 신현숙, 1986 ; 노영희, 1990 등). 이와

같은 많은 연구들은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변화와 차이에 여러 변인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여러 변인들 중 특히 부모는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가정은 인간이 탄생하여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사회집단이고, 가족은 인간이 처음으로 접하는 사회성원이므로 아동이 대인관계 기술을 익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시간적으로 가장 많은 접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성격의 형성 시기에 있어서 다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어린 시절을 가정에서 보낸다는 점에서 가정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가정환경에서 받은 자극이 아동의 인지, 사회와 정서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다.

Seare 등(1960)은 수용과 애정의 분위기에서 자란 아동은 부모에 대한 신뢰의 태도가 성장과 함께 일반화되어 남을 사랑하고 수용하며 자기 방어의 필요도 느끼지 않게 되고, 행동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개방적이고 솔직하게 된다고 하였다.

Waston(1957)의 연구에서는 자율적인 가정의 자녀는 독립적이고 창의적이며 어느 정도의 지속력을 지니고 성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친근감을 나타내는 반면 통제적인 가정의 자녀는 의존적이고 친근감을 보이지 않으며 지속력과 창의성이 낮고 적대감을 많이 나타낸다고 하였다(황미섭, 2000, 재인용).

신용일(1975)은 성격 형성의 장으로서 가정환경,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의 역할이 크다고 전제하고, ‘가정은 인생 최초의 교육의 장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양식과 행동양식, 그리고 습관 형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다(정신숙, 1999, 재인용).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아동의 타인에 대해 취하는 행동양식은 가족 내에서 가족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나 부모와의 관계,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 등에서 학습되고 형성된 행동 패턴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인문제 해결사고에 대한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이나 양육 방식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이상선, 1991 ; 김은영, 1997 ; 이선희, 2000 등)와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발달적 연구(박찬옥, 1986 ; 김은희, 1991 ; 유인이, 1997 등)는 많았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환경의 여러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장 발달과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사회-인지적 발달의 한 측면인 동시에 개인의 사회적 적응에 핵심적 요소인 대인문제 해결사고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건전하고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정환경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가정환경이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문제 1 :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가정의 집단 성격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문제 2 :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가정의 심리적 과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문제 3 : 긍정적·부정적 대안적 해결사고는 심리적 가정 환경과 상관이 있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세웠다.

가설 I : 가정의 집단 성격 하위 요인에 따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1 : 부모에 대한 역할기대에 따라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유의한 차가 있을 것이다.

I-2 : 가족 구성원간의 태도에 따라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유의한 차가 있을 것이다.

I-3 : 가정의 응집력 정도에 따라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유의한 차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 : 가정의 심리적 과정 하위 요인에 따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1 : 가정의 성취-비성취 과정에 따라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유의한 차가 있을 것이다.

II-2 : 가정의 개방-폐쇄 과정에 따라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유의한 차가 있을 것이다.

II-3 : 가정의 친애-거부 과정에 따라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유의한 차가 있을 것이다.

II-4 : 가정의 자율-타율 과정에 따라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유의한 차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I : 긍정적·부정적 대안적 해결사고는 심리적 가정 환경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으로 제주시내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표집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발달단계가 다른 아동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대인문제 해결사고 검사는 관찰법, 면접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에만 국한하였다.

셋째, 대인문제 해결사고 검사의 4 하위 요인 중 대안적 해결사고와 결과예측사고의 두 요인만을 검사하여 가정환경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가정환경의 개념과 구성 요소,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개념과 접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심리적 가정환경과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가정환경의 개념과 구성 요소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장(場)이며, 최초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곳이고,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태도를 익히며 적응하는 방법을 습득해 나가는 곳이다. 그리고 인간의 가역성이 풍부한 유아기와 아동기를 책임지는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가정은 인간의 출생에서부터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성장 발달에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민영순, 1983).

가정환경의 중요성에 대하여 Bossard(1960)는 아동의 발달과 관련하여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가정은 아동의 기대와 이해, 사랑 받고 싶은 욕구를 만족시켜 주며 아동의 여러 가지 능력과 가능성을 발달시켜주는 곳이다. 그리고 아동에게 있어 가정은 타인의 성격이나 대인관계를 익힐 최초의 장소이며 아동의 개인적인 태도, 특히 권위에 대한 적응을 학습시키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익히게 한다.

Bloom(1964)에 의하면 개인의 흥미, 태도, 성격형성 등의 발달속도는 신체적 성장속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달려있으며, 한 단계에서의 문제 해결이

나 갈등 해소 여하는 다음 단계의 문제해결이나 갈등해소에 영향을 주는데 초기의 가정환경에 의한 성격형성이 후기의 성격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가정환경을 중요시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학습 이론적 근거를 들고 있다. 즉, 이미 형성된 흥미, 태도, 성격 등의 체계를 개변시키거나 대체시키기보다는 새롭게 학습하는 것이 더 쉽다고 보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초기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언어가 발달하기 이전에 아동이 갖는 학습은 의식적인 기억을 할 수 없는 무의식의 경험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다(정신숙, 1999, 재인용).

전제일(1975)도 성격형성의 장으로서 가정환경과 가족 구성원의 관계 역할이 크다고 전제하였다. 그는 가정은 최초의 교육의 장으로 기본적인 생활 양식, 행동 양식, 습관 등을 학습하고, 가족 구성원간의 인간 관계에서 욕구 충족을 얻으며 사회성이 발달해 가는 가운데 독자적 자아개념이나 인성 특성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김재은(1979)은 가정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인간의 성격 형성은 아주 어린 시기부터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어릴 때 경험은 전적으로 가정환경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였다.

정원식(1994)은 가정의 특성에 대해 밝히면서 가정환경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가정환경은 학교환경이나 사회환경에 비해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정환경은 물적 요인과 인적 요인으로 구성되며 심리적 환경은 주로 인적 요인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특히 가정환경은 다른 환경에 비해 보다 심리적인 성질을 지니며 주어진 대로의 환경 자체와 그 환경의 개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만 의미를 발휘하게 되는 양면이 있다고 하였다.

유효순과 이영자(1995)는 가족 구성원은 인간이 최초로 사회적 접촉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의 결정적 시기가 있는 생후 초기에 영

아와 부모간의 상호 작용과 정서적 관계는 성장 후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의 기대와 반응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 중에서 가정 환경은 인간이 탄생하는 순간에서부터 운명적으로 만나는 장소이고 인간 교육이 실시되는 최초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정 내부에서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은 장차 사회에서의 적응 양식과 행동 양식의 기초를 마련해 주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준다. 그리고 다른 환경과 비교해 볼 때 가정 환경의 중요한 특성은 가족 구성원간의 강한 심리적 유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 환경에 대한 연구에 있어, 가정 환경의 개념에 관한 탐색과 더불어 가정 환경의 구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는데, 학자에 따라 그 구분이 다양하다.

우선 가정환경을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분류한 학자로 Lewin (1936)은 물리적 환경이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적, 물리적 공간 및 그 속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태를 의미하며, 심리적 환경이란 인간 관계 혹은 심리 작용에서 오는 환경, 즉 개인에 의해서 인식된 생활 공간 또는 분위기를 말한다고 보았다(정신숙, 1999, 재인용).

김광웅(1973)도 가정 환경을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나누고, 물질이나 금전을 투자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상호 작용적 관계를 물리적 환경으로, 이러한 투자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상호 작용적 관계를 심리적 환경으로 규정하였다.

이재창(1981)은 가정 환경을 일반적 환경, 가정 분위기, 부모·자녀 대인관계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일반적 환경으로 부의 직업, 부모의 직업정도, 가정의 월수입, 주택을 들고 있으며, 가정 분위기로는 부모의 나태, 병약, 애정 결핍을 들고 있다. 부모·자녀 대인관계는 지배, 복종, 애정, 적의의 변인을 들고 있다.

이와는 달리 가정 환경을 지위 환경과 과정 환경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Wolf(1964)는 가정 환경을 지위 환경과 과정 환경으로 분류하고 지위 환경은 교육, 지능, 직업, 학력, 수입, 거주 등의 변인을 포함하는 것이고, 과정 환경은 부모와 자녀간의 질적인 상호관계의 변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정신숙, 1999, 재인용).

김태련과 김유진(1973)은 가정 환경을 고정적이 아니라 역동적 개념으로, 지리적·물리적이 아니라 행동적·심리적 개념으로 보고 지위 환경과 과정 환경으로 분류하였다. 지위 환경은 개인에게 작용하는 외적 조건과 자극이 체계화 되어 있는 상태라 규정하였고, 과정 환경은 개인의 내적 조건과 조직화된 자극과의 상호 작용으로 고찰 될 수 있는 환경이라 정의하였다(문희인, 1989, 재인용).

황정규(1977)도 가정 환경을 사회적 지위로서 결정되는 지위 환경과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 작용의 상태와 질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 환경으로 분류하고 지위 환경보다 과정 환경이 가치의식을 결정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원식(1983)은 가정 환경을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분류하던 방식을 달리하여 물리적 환경을 지위 환경으로, 심리적 환경을 구조 환경과 과정 환경으로 분류하였다. 지위 환경이란 가정의 정적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친의 상태, 주거지의 생태적 환경, 사회 경제적 지위, 가족 구성, 가족 상황 등의 변인을 포함하는 것이다. 구조 환경이란 개인에게 작용하는 외적 조건과 자극이 일정한 규칙에 의해 조직되고 체계화되어 있는 구조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문화적 상태, 위생 상태, 언어 모형, 강화 체제, 가치지향성, 학습체제, 집단 성격의 변인을 포함한다. 과정 환경이란 외적 자극과 조건 및 조직화된 체제가 개인과의 상호 작용에서 일어나는 분위기 풍토인데, 수용-거부, 자율-타율, 보호-방임, 성취-비성취, 개방-폐쇄의 변인을 포함한

다고 보았다. 그리고 지위 환경을 제외한 두 변인(구조 환경과 과정 환경)을 심리적 환경이라고 보았다.

이상의 가정 환경의 구성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대인관계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가족 상호간의 관계, 심리적인 상호작용의 상태와 질,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분위기 등은 가정의 심리적 환경 또는 심리적 과정 환경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가정의 심리적 환경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의 구성을 지위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나누고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에 속하는 구조 환경과 과정 환경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의 구조 환경은 개인에게 작용하는 외적 조건 자극이 일정한 조건에 의하여 조직되어 체계화되어 있는 구조적 상태를 의미한다.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양자가 구별되지 않고 모두 구조환경에 혼합되어 있다(문태영, 2002).

구조 환경의 주요 변인에는 문화적 상태, 영양 및 위생상태, 언어 모형, 생활공간, 강화체제, 가치 지향성, 학습체제, 집단 성격이 포함된다.

Clusen(1966)은 가정의 공동목표에 동조하고 있고 협력하는 관계에 있으며, 융합된 가정일 때 아동의 사회적 적응력이 일찍부터 길러지며 현실 수용력이 발달되고 협동성이 강화된다고 하였으며, 가정 내의 구성원 상호간에 자율성을 허용하고 장려하면서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는 민주적인 가정인가 아니면 자녀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가정인가에 따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문태영, 2002, 재인용).

이와 같이 가정 환경의 구조 변인은 가정에서의 자녀의 생활 방식과 태도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동의 사회 적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 환경 중 대인문제 해결사고에 영향을 주는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심리적 유대 관계 등을 알아보고자 하므로 이를 포함하는 변인으로 가정의 집단 성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의 집단 성격이란 가족 집단의 특징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부모에 대한 역할 기대,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 태도, 가족의 응결력 변인이 여기에 포함된다.

‘부모에 대한 역할 기대’란 자녀가 부모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행동유형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배권자란 자녀의 관점에서 볼 때 부모는 그들의 태도, 의사, 욕망에 따라 자녀를 자의로 통제, 명령, 설복시키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며, 협조자란 자녀의 개성과 발달단계에 따라 하나의 독립된 개인으로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가족구성원간의 상호 태도’로서 한 가족 구성원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피검자가 생각하는 피검자와 다른 가족 성원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족의 응결력’이란 가족 구성원이 가정을 생활 공동체로서 일체감을 갖는 정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응결이란 가족원이 모두 유대의식이 강하고 가정에 소속감, 일체감을 느끼며 단결, 협동하는 경향을 말한다. 반면에 소외란 가족 구성원이 집단 감정이나 소속감이 없어 응결되어 있지 않고 서로 경쟁, 갈등,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개인주의적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원식(1983)에 의하면 가정의 심리적 환경 중 과정 환경은 개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 조건이나 자극과의 상호작용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입장이

다. 따라서 과정 환경은 지위 환경과는 달리 동적인 환경 변인이며, 구조 환경보다 더 심리적 특성을 지닌다. 즉, 주체의 지각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그리고 과정 환경은 환경 내의 인적·물적 조건이나 자극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즉, 권위주의적인 부모 자체가 가정 환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와 자녀와의 인간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과정 환경에 대한 하위 변인으로는 성취-비성취,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 변인을 포함한다.

첫째, 성취-비성취 변인은 월등하게 높은 포부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격려, 요구하며 항상 활동하기를 권장하고 박력과 끈기, 주의력을 집중시켜 과업의 달성을 요구하는 성취적인 과정의 극과 무사안일, 현실만족을 강조하는 비성취적 경향의 극을 연결하는 측면이다.

둘째, 개방-폐쇄 변인은 주위의 사물이나 타인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지 않고 대하며 미지의 사태에 대하여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기대하는 것, 자기 중심적 사고의 탈피를 포함하는 개방의 극과 자기중심적 사고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부모의 방임적 태도, 무관심 등의 폐쇄의 극을 연결하는 심리적 측면이다.

셋째, 친애-거부 변인은 가족구성원이 서로 접촉하기를 원하며 상호 간에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고 협동하며, 감정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표현되도록 허용해 주고, 권위를 무조건 존중하여 윗사람의 결정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는 친애적 극과 무시, 체벌, 거부의 극을 연결하는 측면이다.

넷째, 자율-타율 변인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기대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며 비지시적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자율의 극과 지시, 지배, 억압, 금지 일변도의 태도로 대하는 통제적 극을 연

결하는 측면이다. 자율을 비권위적이라 한다면 통제는 권위주의적 관계이다.

3.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개념과 접근 방법

1960년대 초반부터 발달 심리학자와 사회 심리학자들에 의해 강조된 사회인지는 인간 대 인간의 행위에 관한 인지를 다루는 영역으로서, 자신과 타인의 사회적 역할, 관계, 사고, 감정 등에 관하여 어떻게 지각하고 추론하며 개념화하는가에 관한 것이다(이춘재, 1988).

Mead(1934)는 사회인지를 한 개인이 타인을 향해서 의사소통이나 다른 사회적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자기의 마음 속에 타인의 반응을 예견해 보고 그 상상 속에서의 자신의 행동을 가정한 후 실제의 행동을 하게 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이상선, 1991, 재인용).

Flavell(1983)은 더 나아가 이러한 사회인지의 범주에 자기 자신 및 타인에 관한 지식과 자기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및 사회 조직과 제도에 관한 지식이 포함된다고 보았다(유인이, 1997, 재인용).

이러한 사회인지 능력의 차이가 아동들의 발달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사회적 인지가 뛰어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하여 대인관계에서 야기되는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하여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Krasnor와 Rubin, 1981, 이병림, 1996, 재인용).

사회인지 분야의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인지 능력 측면과 관련된 조망수용 능력과 사회적 추리와 연관된 대인문제 해결 능력들을 들 수 있다.

조망수용 능력이란, 타인의 입장이 되어 보는 과정으로 이것은 타인의 능력, 기대, 감정, 잠재적 반응에 대해 추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원활한 대인관계의 기본 조건이다. 이런 타인의 조망을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자기의 견해에서 벗어나 볼 수 있어야 한다.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야기되어 해결하려 할 때에 사람에 따라 감정과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라든지, 사람의 감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조망 능력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병림, 1996).

그러나 조망 능력만으로는 대인문제 해결력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는 부족하다. 즉,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아는 조망 능력이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문제 해결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인식에서 ‘대인문제 해결사고’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다. 대인문제 해결사고란, 대인 문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종의 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능으로서 해결 방안을 산출해 내는 인지적 행동 수행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Spivack과 Shure(1974)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그들은 대인문제 해결사고와 실제적인 문제 해결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적 적응 및 부적응이 대인문제 해결 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인문제 해결사고와 관련하여 Spivack(1974)은 대인문제 해결사고에서 얼마나 많은 해결 방안을 산출해 내는가 하는 양적인 측면의 연구를 Selman(1984)은 산출한 해결 방안들이 얼마나 적절하고 효과적인가 하는 질적인 측면을 연구하였다(노영희, 1990). 또한 이들의 연구는 그 기본 중점에 따라 Spivack은 기능적인 접근으로, Selman은 발달적-구조적 접근으로 나누어지며, 최근에는 기능적 접근에서의 기능적 문제들을 추출하여 발달적-구조적 접근에서의 대인문제 해결 전략 방안 모형과 통합시킨 구조적-기능적 접근

방법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상의 이론을 종합하여 보면 대인문제 해결사고란, 대인 관계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나 방법을 강구하는 능력으로 단순한 한 가지 능력이라기 보다는 일련의 연속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문제 해결사고에 대한 실제적인 능력을 연구한 Spivack 과 Shure의 기능적 접근을 중심으로, Selman의 발달적-구조적 접근 모델 그리고 이것을 통합한 구조적-기능적 접근에 근거하여 가정환경과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므로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Spivack의 기능적 접근 모델

처음으로 대인문제 해결 사고를 이론화 한 Spivack과 Shure(1974)는 지금까지는 사회인지를 한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 또는 타인의 생각, 감정, 의도 등을 추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온 것과는 달리 사회인지를 대인문제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사고를 생성해 낼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인 대인문제 해결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당면한 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얼마나 많은 방안들을 창출해 낼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었다.

그들은 대인문제 해결력을 성격 검사로 측정할 수 있는 성격 특성이 아니며 개인내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적 능력도 아닌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측정하기 위한 ‘대인문제 해결 사고 검사’를 제작하였다. 대인문제 해결사고 검사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Solving test - ICPS)는 아동의 실생활의 문제 같은 가설적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안적 해결사고, 결과 예측 사고, 원인적 해결 사고, 수단-목적 해결사고의 네 가지 하위 사고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대안적 해결사고는 하나의 대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동으로 투입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생각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대안적 해결사고의 핵심은 제시된 해결 방안들 중에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가능한 해결 방안들을 다양하게 생각해 내는 능력이다.

둘째, 결과예측 사고는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대인관계 행위의 영향을 평가해 보는 개인의 능력이다. 자기의 사회적 행동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나 자신에게 가져올 영향에 대해 숙고하는 것이다.

셋째, 원인적 사고란 타인의 행동에 대하여 그 동기나 원인을 통찰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와 도중에 장애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계획을 이행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과 대인문제 해결은 때로는 복잡한 상호 작용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수단-목적 사고란 주어진 대인적 목표에 단계적으로 수단을 이용하여 장애를 예상하고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도달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어떤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 가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다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도를 반영한다.

대인문제 해결사고 검사에서는 아동의 반응을 해결 방안에 속하는 것,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해결방안이란 주어진 대인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도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반응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반면에,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는 반응이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방안으로 관련된 목표, 대체 목표, 무관련 반응을 포함한다. 여기서 관련된 목표란 대안적 해결사고 검사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예를 들면 피험자

동이 문제 중에 진술된 놀이감을 목표로 가져올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된 놀이감과 똑같은 다른 것을 가져도 된다는 식의 반응을 말하며, 대체 목표란 문제 중에서 진술된 놀이감과 다른 종류의 놀이감을 갖겠다고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열거는 이전에 한 해결 방안과 똑같은 방안을 단순히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만 다르게 하여 반응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안적 해결사고인 경우는 아동이 반응한 해결방안을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로 구분하였다. 긍정적 해결사고란 대안적 해결사고 중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를 말하며, 부정적 해결사고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사고이다.

이들 각 하위 사고들은 동일한 내용의 사고과정이 아닌 독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하며, 대인문제 해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대인문제 해결력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2) Selman의 발달적-구조적 접근 모델

Spivack이 대인문제 해결력을 해결방안의 수로써 측정하여 이를 사회적 능력과 관련지어 본 것과는 다르게 Selman(1984)은 해결 방안의 내용 수준을 통하여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대인문제 해결 전략에서 사람들이 대인간의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할 때 타인의 사고, 감정, 동기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가에 관심을 가지는데, 이것은 조망 구조, 일차적 목적, 정서적인 조절 그리고 지향적인 행동의 4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자아와 타인의 조망 구조’는 개인이 자기와 타인에 관하여 실제로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자기와 타인을 심리적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분석하는 것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간주하며, 자기와 타인 모두의 사고, 감정, 요구에 관해서 평가하고 이해하는 것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류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 대한 생각 없이 인형을 빼앗거나 잡아채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 인형을 빌리기 위해 친구를 설득하는 행동은 가장 높은 수준의 행동으로 보는 것이다.

‘일차적 목적’은 행동에 내재되어 있는 의도적인 동기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상호작용의 결과와 관계의 목적 및 관계의 과정에까지 관심을 두는 보다 높은 단계까지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낮은 단계일수록 장난감을 소유하는 것에만 급급해 하며, 높은 단계일수록 타인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과 일치하도록 변화시키려 한다.

‘정서적인 조절’은 대인관계의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감정적인 불일치를 인식하고 조절해 나가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 충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감정적인 불균형이 자신에 의해서 지각되고 통제되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달한다.

‘지향적인 행동’은 개인이 자신의 욕구나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때에 자신과 타인 중에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때 타인의 사고, 감정,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할 수도 있고, 자기의 사고, 감정,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할 수도 있다. 높은 단계일수록 자기와 타인의 지향을 동시에 통합하는 해결 방안을 사용한다.

3) 구조적-기능적 접근 통합 모델

Selman과 그의 동료들(1984)은 Spivack의 기능적 접근에서의 기능적 문제들을 추출하여 발달적-구조적 접근에서의 대인문제 해결 전략 방안 모형과 통합시킨 통합적 모델을 구성하였다. 이 모델의 구성 요소는 3가지 즉, 사회적 조망에 따른 전략의 발달적 수준, 정보처리 과정의 기능적 문제, 그리고 상황적인 변인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사회적 조망에 따른 전략의 발달적 수준에는 다음의 4수준이 포함된다.

수준 1은 충동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하려는 전략들이 포함된다. 이 방법들은 어떤 문제를 다룰 때 개인이 중요한 타인의 조망을 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수준 2는 개인이 중요한 타인의 조망이 개인 자신의 조망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기는 하나 두 사람의 조망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는 전략들이다. 그래서 이 방안들은 일방적인 명령이나 주장, 요구를 나타내거나 반대로 단순하고 도전하지 않는 순응을 보이거나 포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준 3은 심리적으로 상호적인 교환에 근거해서 자신과 타인의 조망을 이해하는 것이다. 거래, 교환, 언어적 설득, 타인을 납득시키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등의 방안들이 이에 속하며, 이 수준에서는 개인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완전하게 양보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수준 4에는 제 3자의 입장에서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통합하고자 하는 전략들이 분류된다. 화해, 대화, 과정분석, 공유할 수 있는 목표 설정 등이 이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정보처리 과정의 기능적 문제’ 요소에는 문제에 관한 정의, 행동 취하기, 해결방안에 관한 정당화, 감정의 복잡성의 4가지 문제를 포함한다.

‘문제에 관한 정의’는 피험자가 갈등 상황 속에 묘사된 개인들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 정의 하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행동을 취하기’는 일단 문제가 정의된 후 이야기 주인공이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다루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해결 방안에 관한 정당화’는 피험자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초점을 둔 것으로 그 해결책이 자신만을 위한 것인지,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한 것인지 구별하는 항목이다.

‘감정의 복잡성’은 주인공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 주인공과 중요한 타인이 어떻게 느끼겠는가 하는 감정에 관한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상황적 변인’ 요소에는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 전략 사용의 수준이 상황의 변인에 민감하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대상의 지위, 협상의 위치, 관계성의 유형에 따라 해결 전략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문제 해결사고를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인지적 능력이라 정의하고, 그 하위 요인으로 Spivack의 기능적 접근 모델에 기초하여 대안적 해결사고, 결과예측 사고의 두 가지를 포함한다.

4. 대인문제 해결사고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여러 변인들의 영향에 의해 변화와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를 살펴보면 대인문제 해결방안의 수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발달적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가 있다. 즉,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해결을 보이고 높은 전략과 상호호혜적 발달수준을 보이는 반면 나이 어린 아동들은 대인기술이나 대인이해의 발달적 부족을 나타내고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Asher와 Renshae, 1983 ; Hartup, 1989 ; 이선희, 2000, 재인용).

Selman과 그의 동료들(1983)은 사회적 이해에 대해 발달적 측면을 연구한 결과 연령이 높은 아동일수록 높은 수준의 전략을 사용한다고 밝혔으며, 아동의 정보처리 기술과 아동의 갈등해결 전략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갈등해결

능력에 있어서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보다 세련되고 높은 수준의 해결능력을 보인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찬옥(1986)은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해결사고를 보이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반응한다고 하였으며, 김은희(1990), 이영(1990)도 4, 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제해결 방안의 내용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홍경옥(1998)도 6, 8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대인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수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연령 증가에 따라 대인문제 해결능력이 증가하지 않아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도 있다.

Pellegrini(1985)는 3학년에서 6학년 아동의 수단-목적 사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연령증가에 비해 오히려 수단-목적사고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강성희(1991)도 수단-목적사고가 4-6학년 아동간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호되는 해결전략에 대해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Coie와 그의 동료들(1982)은 대인간의 상호작용시 남아는 공격적 전략을, 여아는 협동적이고 친사회적 전략을 사용하므로 대인간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에 있어서 성차가 있다고 보았다(이선희, 2000,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박찬옥(1986)은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성, 가정경제적 수준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남아에 비해 여아가 결과예측사고와 원인적 사고에 있어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박찬옥(1986)은 아동의 성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차이는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즉,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차 교육의 특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며 남자 아동에 비해 여자 아동이 성인(어머니)의 문제해

결 방법을 관찰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실제 대인문제 상황에서 더 많은 해결방안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와는 달리, 성에 따라 유의한 차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Shure와 Spivack(1970)은 4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대인문제 해결 사고에서 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했으며, 문희인(1987), 김은희(1990), 오화심(1994) 등은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이 고르게 발달하는 능력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인대상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차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에 있어서 상대가 성인인 경우와 친구인 경우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는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박찬옥(1986)은 문제해결사고의 반응수가 친구, 어머니, 교사 순으로 감소한다고 하였으며, 문희인(1989), 이상선(1991)도 또래 집단인 친구보다 성인 즉 어머니, 교사의 반응수가 적었다고 밝혔다.

오화심(1994)은 대인 대상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에서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사고 능력은 어머니, 교사의 문제보다 친구문제의 경우에서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에서 박찬옥(1986)은 사회경제적 지위 및 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

반면에 정수자(1979)는 아버지의 교육 정도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였고 Spivack의 ICPS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사회 계층별 변인과 유의미한 차가 없다고 하였다.

5. 심리적 가정환경과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부모의 양육 태도와 관련 지은 연구가 많다.

Spivack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에 끼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말하며 중요시 하였다.

“양육자들이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며, 아동이 관여되어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가는 대인적인 문제 장면에서 부딪혔을 때 아동이 사용하는 해결 방안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Spivack 등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Weinstock(1967)은 유아기때 벌을 많이 사용하고 대화가 단절된 가정에서 양육되었던 성인들은 그렇지 않은 성인에 비해 주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정적이거나 회피적인 방어 기재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이는 양육 태도는 자녀의 정의적 및 인지적인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Sears(1965)는 부모의 양육 방법, 양육 태도 등이 아동의 인성 발달에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송경민, 1998, 재인용).

Busse(1967)는 10세 소년들의 융통적 사고와 부모의 양육방식간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는데 아동과의 다정한 대화, 적절한 분량의 과제 지시, 아동이 수행한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보이는 부모일수록 그들의 자녀는 그렇지 못한 자녀보다 훨씬 더 융통성 있는 사고 능력을 보였다고 하였다(김은영, 1999, 재인용).

박찬옥(1986)은 6, 8,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에 대한 발달적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 때 유아들은 부정적 태도로 양육된 유아들보다 긍정적으로

대인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많이 갖는다고 밝혔다.

서찬원(1995)은 부모의 양육유형과 자녀의 대인문제 해결능력과의 관계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일 때 그 아동들의 대안적 해결사고에서 긍정적 범주의 해결방안 수가 많았다고 하였다.

김은영(1997)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대부분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었고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사고를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밝혔다.

박광균(2000)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는 유아의 친사회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고, 방임적인 아버지를 둔 유아는 친사회성이 낮으며 배척활동을 보이고 있어 아버지의 관심과 애정이 유아의 바람직한 사회적 능력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의적, 인지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융통적 사고와 인성 발달의 기초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긍정적 사고를 길러주는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윤재용(1982)은 어머니의 문제해결 반응과 학령전 아동의 사회적 문제해결 전략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어머니의 문제해결 반응의 형태가 아동의 사회적 문제해결 전략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즉 어머니가 단순히 이유를 묻는 것을 떠나 문제상황을 설명하도록 하는 문제해결 반응을 보일 때 아동의 사회적 문제해결전략 중 만족지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어머니의 육아방식과 어머니-유아간의 상호작용 유형은 아동의 사회적 문제해결 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즉 어머니에게 사랑받는 아동일수록 협상, 개인적 호소전략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어머니가 적대적, 비성취적이고 감각 우위 육아방식을 사용할 때 아동은 무력적 문제해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문제해결 전략의 대안수도 적었다고 하였다(성규현, 1983 ; 오화

심, 1994).

이혜경(1998)은 어머니의 언어유형과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 연구에서 어머니의 언어유형은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사고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언어유형은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개인적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가정에서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많은 어머니가 아동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하는 유형은 아동의 사회적 문제 해결력에 영향을 주며, 가정 내에서의 의사소통 과정이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를 발달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할 때,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가정 환경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요인 중 부모의 태도, 양육방식, 대화유형 등과 같은 심리적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정은 아동의 성격, 사회성, 생활습관 등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를 보내는 곳이고 가족 구성원은 아동의 대인관계 기술을 처음으로 배우고 학습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의 집단성격과 심리적 과정을 포함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 변인이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 중 대안적 해결사고와 결과 예측사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장에서는 심리적 가정환경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의 실시에 따른 연구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기 위해 연구 대상, 측정도구, 자료 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 학교는 제주시에 있는 3개 학교를 무작위로 선택하였으며, 총 7개 반에서 266부의 설문을 배부하였다. 조사 실시는 연구자가 직접 대인문제 해결사고 측정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작성 요령을 전달한 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불완전한 응답을 한 43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23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가정환경 검사와 대인문제해결사고 검사 두 가지이다.

1) 가정환경 검사

가정환경 측정을 위해 정원식(1989)이 제작한 가정환경 진단 검사(국민학

교 고학년용)를 사용하였는데 가정의 집단성격에서 역할기대, 가족 상호간의 태도, 가족의 응집력 등 3가지 변인과 가정의 심리적 과정에서 성취-비성취,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 등 4가지 변인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측정방식으로 심리적 가정환경의 각 문항 측정은 “예”, “잘 모르겠다”, “아니오”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각 항목별 해당 문항에 대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답하면 3점, “잘 모르겠다”에 답하면 2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답하면 1점을 주어 이 점수의 합계를 각 특성 항목의 통계값으로 처리하였다.

이 검사 도구의 각 하위 영역별 문항 및 신뢰도는 <표Ⅲ-1>과 같다.

<표Ⅲ-1> 가정환경검사 도구의 문항 및 신뢰도

하위 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계수
가정의 집단 성격	부모에 대한 역할 기대	1, 4, 7, 10, 13, 16, 19, 22	8	.78
	가족구성원 간의 태도	2, 5, 8, 11, 14, 17, 20, 23	8	.87
	가정의 응집력	3, 6, 9, 12, 15, 18, 21, 24	8	.85
가정의 심리적 과정	성취-비성취	25, 29, 33, 37, 41, 45, 49, 53, 57, 61, 65, 69	12	.78
	개방-폐쇄	26, 30, 34, 38, 42, 46, 50, 54, 58, 62, 66, 70	12	.80
	친애-거부	27, 31, 35, 39, 43, 47, 51, 55, 59, 63, 67, 71	12	.82
	자율-타율	28, 32, 36, 40, 44, 48, 52, 56, 60, 64, 68, 72	12	.68
계		72		

2) 대인문제해결 사고 검사

본 연구에서는 대인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아동이 어떤 해결 방안을 생각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Spivack(1976)의 ICPS(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test)와 이를 토대로 채점 기준 및 이야기 내용들을 수정한 Pellegrini(1985)의 MEPS(Means-Ends Problem Solving test)-R을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맞게 번역한 양진희(1992), 박희숙(1995)의 것을 사용하였다. 대인문제 해결력 검사는 원래 개인 면담으로 이루어졌으나 양진희(1992), 박희숙(1995) 등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필 검사로 대체하여 사용한 결과 별 차이가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지필 검사로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아동의 실생활 문제를 가설적 이야기로 구성하고 있으며 네 가지 하위 사고 즉, 대안적 해결사고, 결과 예측 사고, 원인적 사고, 수단-목적 사고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자가 표본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한 결과 네 가지 하위 사고 중 원인적 사고와 수단-목적 사고에서는 아동들의 반응이 적었다. 이는 박찬옥(198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해결사고와 결과예측 사고의 두 하위사고만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주어진 문제 상황의 대상을 아동(친구)일 때로 제한하여 측정하였다.

<표Ⅲ-2> 대인문제 해결사고 검사의 구조

하위사고	문 항 서 술
대안적 해결사고	1. 수진이는 아버지가 사 주신 카세트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미도 그것을 한 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수진이는 카세트가 새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 듣고 싶었어요. 영미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과예측 사고	1. 은정이는 새 축구공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것으로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영현이도 그것으로 놀고 싶어서 은정이에게서 축구공을 빼앗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검사 방법으로 대안적 해결사고, 결과예측 사고는 각각 1개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각각 5가지 반응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즉, 각 하위 사고 검사에서 얻을 수 있는 반응 점수는 0점에서 5점까지이다.

채점 방법을 보면, 대인 문제 해결사고 검사의 각 장면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해결 방안에 속하는 것,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이 중 해결 방안에 속하는 것에만 1점씩 배점한다.

<표Ⅲ-3>대인문제 해결사고 검사 반응의 범주와 배점

하위 사고	반 응 범 주		배점	
대안적 해결사고	관련 해결 방안	긍정적 해결방안	요청, 공평, 교환, 설득, 제3자 동의, 기다림, 유모어, 보상, 심리적 자극	각 1점
		부정적 해결방안	신체적 공격, 위협, 우정철회, 권위의존, 소유물손상, 계책, 뇌물, 복종, 거래, 흠치기(감추기), 빼앗기, 일방적 공평, 때쓰기, 항의	각 1점
	비관련 해결방안	관련된 목표, 대체 목표, 열거, 반복		
결과예측 해결사고	관련 해결방안	양보, 공평제안, 교환제안, 훈계, 심리적 자극, 기다림 저항, 화냄, 벌, 권위의존, 우정철회, 위협, 신체적 공격, 소유물손상	각 1점	
	비관련 해결방안	대체 목표, 열거, 반복		

본 검사에서 각 하위사고의 재검사 신뢰도는 $r=.80\sim.92$ 로 나타났다(박찬옥, 1986).

이 검사지는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문항으로 되어 있어 대상 아동 중 40명을 선정하여 채점자 2인간의 동의율을 구하였다. 본 연구자와 상담심리를 전공한 초등교사의 도움을 얻어 각각 채점한 결과 채점자 동의율은 $.92\sim.95$ 로 나타났다.

<표Ⅲ-4> 채점자간 동의율 산출 공식

$$\text{채점자간 동의율} = \frac{2 \times \text{공통판단수}}{\text{채점자 A의 판단수} + \text{채점자 B의 판단수}}$$

자료 : 박찬옥(1986).

3. 자료 처리

본 연구 자료의 통계적 처리는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고,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심리적 가정환경 수준은 설문지의 점수를 계산한 후 상위 30%와 하위 30%를 기준으로 상, 하 집단으로 나누었다.

둘째, 심리적 가정환경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P<.01$ 과 $P<.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셋째, 심리적 가정환경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대안적 해결사고와의 상관은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P<.01$ 과 $P<.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하여 조사 자료를 통계 분석한 결과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의 집단 성격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과의 차이 검증

가설 I은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과는 가정의 집단 성격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에 대한 역할기대 정도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과의 차이

<표IV-1>은 가정의 집단 성격에 대한 하위 요소인 부모에 대한 역할기대와 대인문제 해결사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IV-1> 부모에 대한 역할 기대 정도별 대인문제 해결사과

구 분		부모에 대한 역할 기대		t
		상(N=52)	하(N=58)	
대안적 해결사과	M	4.08	3.84	1.16
	SD	.90	1.17	
결과예측사과	M	3.98	3.67	1.49
	SD	.95	1.18	
대인문제 해결사과	M	8.06	7.52	1.67
	SD	1.52	1.83	

위의 표<IV-1>에서 부모에 대한 역할 기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대안적 해결사고와 결과예측 사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대인문제 해결사고 전체에서도 부모에 대한 역할기대가 높은 집단의 대인문제 해결사고 평균 점수가 낮은 집단의 대인문제 해결사고 평균 점수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이는 아동이 부모를 자신의 개성과 발달 단계에 따라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협조자적 가정환경으로 인식하느냐, 반대로 지배자적 가정환경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대인문제 해결사고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족 구성원간의 태도 정도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차이

<표IV-2>는 가정의 집단 성격에 대한 하위 요소인 가족 구성원간의 태도와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IV-2> 가족 구성원간의 태도 정도별 대인문제 해결사고

구 분		가족구성원간의 태도		t
		상(N=47)	하(N=56)	
대안적 해결사고	M	4.13	3.95	.89
	SD	.99	1.05	
결과예측사고	M	4.30	3.75	3.07 **
	SD	.81	.98	
대인문제 해결사고	M	8.43	7.70	2.44 *
	SD	1.56	1.48	

* : $p < .05$, ** : $p < .01$

위의 표<IV-2>에서 가족 구성원간의 태도가 높은 집단의 대인문제 해결사고 (M=8.43)와 낮은 집단의 대인문제 해결사고(M=7.70)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44$, $p < .05$). 즉, 가족 구성원간의 태도가 긍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사고 영역별로 보면 대안적 해결사고는 가족 구성원간의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예측사고에서는 가족구성원간의 태도가 높은 집단의 결과예측사고(M=4.30)와 낮은 집단의 결과예측사고(M=3.7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07, p<.01$).

즉, 가족구성원간의 태도가 긍정적인 집단이 부정적인 집단보다 대인문제 해결사고가 더 높으며, 그 중 결과예측 사고력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동일수록 대인문제 해결사고가 더 높으며, 그 중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대인 관계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지를 생각해내는 결과 예측 사고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가정의 응집력 정도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차이

<표IV-3>은 가정의 집단 성격에 대한 하위 요소인 가정의 응집력 정도와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IV-3> 가정의 응집력 정도별 대인문제 해결사고

구 분	가정의 응집력		t
	상(N=61)	하(N=62)	
대안적 해결사고	M	4.13	.54
	SD	1.12	
결과예측사고	M	4.20	2.48 *
	SD	.98	
대인문제 해결사고	M	8.33	1.85
	SD	1.81	

* : $p<.05$

위의 표<IV-3>에서 가정의 응집력이 높은 집단의 대인문제 해결사고(M=8.33)와 낮은 집단의 대인문제 해결사고(M=7.77)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다.

영역별로 보면 대안적 해결사고에서는 가정의 응집력이 높은 집단의 대안적 해결사고(M=4.13)와 낮은 집단의 대안적 해결사고(M=4.03)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예측사고에서는 가정의 응집력이 높은 집단의 결과예측사고(M=4.20)와 낮은 집단의 결과예측사고(M=3.74)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다($t=2.48$, $p<.05$). 즉, 소외된 가정환경보다 응결된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동이 결과예측사고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송경민(1998)의 연구에서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에 대한 과정환경 변인의 영향력 차이 검증에서 대안적 해결사고는 응집성, 참여성, 의사소통, 공정성의 과정 환경 변인 중 응집성은 대안적 해결사고에는 영향력이 없으나 결과예측사고에는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 상관이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가정의 집단성격 전체의 정도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차이를 알아보면 <표IV-4>와 같다.

<표IV-4> 가정의 집단성격 전체의 정도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

구 분		가정의 집단성격 전체		t
		상(N=46)	하(N=54)	
대안적 해결사고	M	4.22	3.87	1.70
	SD	.92	1.10	
결과예측사고	M	4.22	3.67	2.97 **
	SD	.84	.99	
대인문제 해결사고	M	8.43	7.54	3.14 **
	SD	1.42	1.42	

** : $p<.01$

위의 <표IV-4>는 가정의 집단성격 전체의 정도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를 비교한 것으로 가정의 집단성격이 높은 집단의 대인문제 해결사고(M=8.43)와 낮은 집단의 대인문제 해결사고(M=7.54)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t=3.14$, $p<.01$)를 보여 가정의 집단성격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대인문제 해결사고가 더 높게 나타났다. 즉, 가족 집단의 특징적 상태를 의미하는 가정의 집단 성격에서 부모에 대한 역할 기대, 가족 상호간의 태도, 가정의 응집력이 높을수록 대인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고를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영역별로 보면 대안적 해결사고와 가정의 집단성격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예측 사고에서는 가정의 집단성격이 높은 집단의 결과예측 사고(M=4.22)와 낮은 집단의 결과예측 사고(M=3.67)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97$, $p<.01$). 즉, 가정의 집단성격이 높은 집단에서 자란 아동이 낮은 집단보다 결과예측 사고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가정의 집단 성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은 부분적으로 수용되었으며, 특히 가정의 집단성격에 따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 중 결과예측 사고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가정의 심리적 과정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차이 검증

가설 II는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가정의 심리적 과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취-비성취적 과정의 정도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차이

<표IV-5>는 가정의 심리적 과정에 대한 하위 요소인 성취-비성취 과정과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IV-5> 가정의 성취-비성취 정도별 대인문제 해결사고

구 분	성취-비성취		t
	상(N=66)	하(N=56)	
대안적 해결사고	M	4.05	.43
	SD	.95	
결과예측사고	M	3.94	1.28
	SD	.99	
대인문제 해결사고	M	7.98	1.09
	SD	1.43	

위의 표<IV-5>에서 보면 가정의 심리적 과정에서 성취 집단의 대인문제 해결사고(M=7.98)와 비성취 집단의 대인문제 해결사고(M=7.66)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역별로 보았을 때도 대안적 해결사고와 결과예측 사고 모두에서 성취 집단(M=4.05, M=3.94)과 비성취 집단(M=3.96, M=3.70)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2) 개방-폐쇄적 과정의 정도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차이

<표IV-6>은 가정의 심리적 과정에 대한 하위 요소인 개방-폐쇄적 과정과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IV-6> 가정의 개방-폐쇄 정도별 대인문제 해결사고

구 분		개방-폐쇄		t
		상(N=51)	하(N=59)	
대안적 해결사고	M	4.12	3.90	1.09
	SD	1.16	.94	
결과예측사고	M	3.82	3.78	.22
	SD	1.13	1.00	
대인문제 해결사고	M	7.94	7.68	.78
	SD	1.97	1.57	

위의 표<IV-6>에서 보면 가정의 심리적 과정에서 개방 집단의 대인문제 해결사고(M=7.94)와 폐쇄 집단의 대인문제 해결사고(M=7.68)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역별로 보았을 때 개방 집단의 대안적 해결사고와 결과예측 사고(M=4.12, M=3.82)는 폐쇄 집단의 대안적 해결사고와 결과예측 사고(M=3.90, M=3.78)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었다.

3) 친애-거부적 과정의 정도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차이

<표IV-7>은 가정의 심리적 과정에 대한 하위 요소인 친애-거부적 과정과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IV-7> 가정의 친애-거부 정도별 대인문제 해결사고

구 분		친애-거부		t
		상(N=57)	하(N=46)	
대안적 해결사고	M	4.28	3.87	2.29 *
	SD	.90	.91	
결과예측사고	M	4.04	3.74	1.56
	SD	.87	1.02	
대인문제 해결사고	M	8.32	7.61	2.50 *
	SD	1.35	1.51	

* : p<.05

위의 표<IV-7>에서 가정의 심리적 과정 중 친애 집단의 대인문제 해결사고(M=8.32)와 거부 집단의 대인문제 해결사고(M=7.6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t=2.50, p<.05)를 보여 친애 집단이 거부 집단보다 대인문제 해결사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영역별로 보면 대안적 해결사고는 친애 집단(M=4.28)과 거부 집단(M=3.87)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29, p<.05)를 보였다. 즉, 가족 구성원 서로가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고 협동하며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분위기에서 자란 아동이 대인문제 상황에서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예측 사고에서는 친애 집단의 결과예측 사고(M=4.04)와 거부 집단의 결과예측 사고(M=3.74)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다.

4) 자율-타율적 과정의 정도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차이

<표IV-8>은 가정의 심리적 과정에 대한 하위 요소인 자율-타율적 과정과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IV-8> 가정의 자율-타율 정도별 대인문제 해결사고

구 분	자율-타율		t
	상(N=48)	하(N=67)	
대안적 해결사고	M	4.46	3.52 **
	SD	.94	
결과예측사고	M	3.83	.22
	SD	1.10	
대인문제 해결사고	M	8.29	2.18 *
	SD	1.73	

* : $p < .05$, ** : $p < .01$

위의 표<IV-8>에서 가정의 심리적 과정 중 자율적 집단의 대인문제 해결사고(M=8.29)와 타율적 집단의 대인문제 해결사고(M=7.66)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다($t=2.18, p < .05$). 즉, 자율적 집단이 타율적 집단보다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영역별로 보면 대안적 해결사고는 자율적 집단의 대안적 해결사고(M=4.46)와 타율적 집단의 대안적 해결사고(M=3.87)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t=3.52, p < .01$)를 보여 자율적 집단이 타율적 집단보다 대안적 해결사고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 생활에서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강조하며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분위기에서 자란 아동일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결과예측 사고는 자율적 집단의 결과예측 사고(M=3.83)와 타율적 집단의 결과예측 사고(M=3.79)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가정의 심리적 과정 전체의 정도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차이를 알아보면 <표IV-9>와 같다.

<표IV-9> 가정의 심리적 과정 전체의 정도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

구 분		가정의 심리적 과정 전체		t
		상(N=47)	하(N=58)	
대안적 해결사고	M	4.43	3.81	3.42 **
	SD	.88	.95	
결과예측사고	M	4.13	3.67	2.33 *
	SD	.99	1.00	
대인문제 해결사고	M	8.55	7.48	3.87 **
	SD	1.35	1.45	

* : $p < .05$, ** : $p < .01$

위의 표<IV-9>에서 가정의 심리적 과정이 높은 집단의 대인문제 해결사고(M=8.55)와 낮은 집단의 대인문제 해결사고(M=7.48)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여($t=3.87$, $p < .01$), 가정의 심리적 과정이 높은 환경에서 자란 아동이 낮은 환경의 아동보다 대인문제 해결사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영역별로 보면 대안적 해결사고는 가정의 심리적 과정이 높은 집단의 대안적 해결사고(M=4.43)와 낮은 집단의 대안적 해결사고(M=3.8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으며($t=3.42$, $p < .01$), 결과예측 사고도 가정의 심리적 과정이 높은 집단의 결과예측 사고(M=4.13)와 낮은 집단의 결과예측 사고(M=3.67)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다($t=2.33$, $p < .05$).

즉, 가정의 심리적 과정이 성취적, 개방적, 친애적, 자율적 환경에서 자란 아동일수록 타인과의 문제나 갈등 상황에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 지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가정의 심리적 과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I도 수용되었다.

3. 심리적 가정 환경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대안적 해결사 고의 관계

가설 III은 아동의 심리적 가정 환경에 따라 긍정적·부정적 대안적 해결사
고에는 유의한 차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의 집단 성격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대안적 해결사고의 관계

<표IV-10>은 가정의 집단 성격 하위 요소별 긍정적·부정적 대안적 해결사
고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IV-10> 가정의 집단 성격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대안적 해결사고

가정의 집단 성격	대안적 해결 사고	
	긍정적	부정적
부모에 대한 역할 기대	.220 **	-.136 *
가족구성원간의 태도	.231 **	-.180 **
가정의 응집력	.159 *	-.150 *
가정의 집단성격 전체	.265 **	-.191 **

* : $p < .05$, ** : $p < .01$

위의 <표IV-10>에서 가정의 집단성격과 긍정적 대안적 해결 사고간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0.265, p < .01$), 부정적 대
안적 해결 사고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191, p < .01$).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긍정적 대안적 해결사고와는 가족구성원간의 태도, 부모에 대한 역할 기대, 가정의 응집력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0231, r=0.220, r=.159$), 부정적 대안적 해결 사고와는 가족 구성원간의 태도, 가정의 응집력, 부모에 대한 역할 기대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36, r=-.150, r=-.180$).

2) 가정의 심리적 과정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대안적 해결사고 관계

<표IV-11>은 가정의 심리적 과정의 하위 요소별 긍정적·부정적 대안적 해결사고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IV-11> 가정의 심리적 과정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대안적 해결사고

가정의 심리적 과정	대안적 해결 사고	
	긍정적	부정적
성취-비성취	-.001	.011
개방-폐쇄	.033	.021
친애-거부	.228 **	-.114
자율-타율	.239 **	-.076
가정의 심리적 과정 전체	.232 **	-.073

** : $p<.01$

가정의 심리적 과정과 긍정적 대안적 해결 사고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r=0.232, p<.01$), 부정적 대안적 해결 사고와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하위 영역별로 보면 긍정적 대안적 해결사고는 성취-비성취, 개방-폐쇄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율-타율, 친애-거부는 긍정적 대안적 해결 사고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239$, $r=.228$, $p<.01$).

이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일수록 유아는 긍정적인 대안적 해결사고를 하고,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를 취할수록 부정적 대안적 해결사고를 한다는 이선희(2000)의 연구와 상관이 있다.

이에 따라 가정환경에 따라 긍정적·부정적 대안적 해결사고는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III은 수용되었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가정환경과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관계가 있는가를 밝혀 대인문제 해결사고를 높일 수 있는 가정환경 변인을 알아내고 적절한 가정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제 1 :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가정의 집단 성격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문제 2 :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가정의 심리적 과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문제 3 : 긍정적·부정적 대안적 해결사고는 심리적 가정 환경과 상관이 있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세웠다.

가설 I : 가정의 집단 성격 하위 요인에 따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1 : 부모에 대한 역할기대에 따라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유의한 차가 있을 것이다.

I-2 : 가족 구성원간의 태도에 따라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유의한 차가 있을 것이다.

I-3 : 가정의 응집력 정도에 따라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유의한 차가 있을 것이다.

가설Ⅱ : 가정의 심리적 과정 하위 요인에 따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Ⅱ-1 : 가정의 성취-비성취 과정에 따라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Ⅱ-2 : 가정의 개방-폐쇄 과정에 따라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Ⅱ-3 : 가정의 친애-거부 과정에 따라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Ⅱ-4 : 가정의 자율-타율 과정에 따라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Ⅲ : 긍정적·부정적 대안적 해결사고는 심리적 가정 환경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제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 223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로는 아동의 가정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정원식(1989)이 제작한 가정환경 진단 검사(국민학교 고학년용)를 사용하였는데 가정의 집단성격과 가정의 심리적 과정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가정의 집단성격에서는 부모에 대한 역할기대, 가족 상호간의 태도, 가족의 응결력 등 3가지 변인을, 가정의 심리적 과정에서는 성취-비성취,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 등 4가지 변인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Spivack(1976)의 ICPS(Int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test)와 이를 토대로 채점 기준 및 이야기 내용들을 수정한 Pellegrini(1985)의 MEPS-R을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맞게 번역한 양진희(1992), 박희숙(1995)의 것을 사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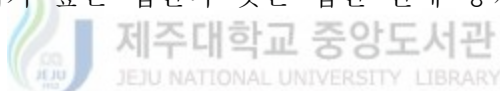
였는데,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4하위 요인인 대안적 해결사고, 결과예측사고, 원인적사고, 수단-목적사고 중에 대안적 해결사고와 결과예측사고의 2하위 요인을 측정하였다.

검사 후 연구자가 채점한 것을 전산처리 하였으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을 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집단 성격 하위 요인에 따른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차이

① 부모에 대한 역할기대 정도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역별로 보면 대안적 해결사고와 결과예측 사고 모두에서 부모에 대한 역할 기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② 가족 구성원간의 태도 정도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차이에서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가족구성원간의 태도가 높은 집단(M=8.43)과 낮은 집단(M=7.70)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44, p<.05$).

이를 영역별로 보면 대안적 해결사고는 가족 구성원간의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과예측사고는 가족구성원간의 태도가 높은 집단(M=.81)과 낮은 집단(M=.98)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07, p<.01$).

③ 가정의 응집력 정도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 차이에서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가정의 응집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다.

영역별로 보면 대안적 해결사고에서는 가정의 응집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으나, 결과예측사고에서는 가정의 응집력이 높은 집단(M

=4.20)과 낮은 집단(M=3.74)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다($t=2.48, p<.05$).

④ 가정의 집단성격 전체의 정도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차이에서 가정의 집단성격이 높은 집단(M=8.43)과 낮은 집단(M=7.54) 간에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다($t=3.14, p<.01$).

영역별로 보면 대안적 해결사고와 가정의 집단성격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결과예측 사고에서는 가정의 집단성격이 높은 집단(M=4.22)이 낮은 집단(M=3.6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t=2.97,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의 심리적 과정 하위 요인에 따른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차이

① 성취-비성취적 과정의 정도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 차이에서 성취 집단과 비성취 집단 간에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역별로 보았을 때도 대안적 해결사고와 결과예측사고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② 개방-폐쇄적 과정의 정도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차이에서 개방 집단과 폐쇄 집단 간에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역별로 보았을 때도 대안적 해결사고와 결과예측사고 모두에서 개방 집단과 폐쇄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③ 친애-거부적 과정의 정도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 차이에서 친애 집단과 거부 집단 간에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유의한 차($t=2.50, p<.05$)를 보여 친애 집단(M=8.32)이 거부 집단(M=7.61)보다 대인문제 해결사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영역별로 보면 대안적 해결사고는 친애 집단(M=4.28)이 거부 집단(M=3.8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t=2.29, p<.05$)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결과예측사고에서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다.

④ 자율-타율적 과정의 정도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 차이에서 자율적 집단과 타율적 집단 간에 대인문제 해결사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다($t=2.18, p<.05$). 즉, 자율적 집단($M=8.29$)이 타율적 집단($M=7.66$)보다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영역별로 보면 대안적 해결사고는 자율적 집단($M=4.46$)과 타율적 집단($M=3.87$) 간에 유의한 차($t=3.52, p<.01$)를 보여 자율적 집단이 타율적 집단보다 대안적 해결사고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과예측사고는 자율적 집단과 타율적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다.

⑤ 가정의 심리적 과정 전체의 정도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비교에서 대인 문제 해결사고는 가정의 심리적 과정이 높은 집단($M=8.55$)과 낮은 집단($M=7.48$) 간에 유의한 차($t=3.87, p<.01$)를 보였다.

이를 영역별로 보면 대안적 해결사고는 가정의 심리적 과정이 높은 집단($M=4.43$)과 낮은 집단($M=3.81$) 간에 유의한 차를 보였으며($t=3.42, p<.01$), 결과예측사고도 가정의 심리적 과정이 높은 집단($\bar{X}=4.13$)과 낮은 집단($\bar{X}=3.67$) 간에 유의한 차를 보였다($t=2.33, p<.05$).

셋째, 심리적 가정 환경과 긍정적·부정적 대안적 해결사고의 관계

① 가정의 집단성격과 긍정적 대안적 해결 사고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0.265, p<.01$), 부정적 대안적 해결 사고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91, p<.05$).

영역별로 살펴보면, 긍정적 대안적 해결사고와는 가족구성원간의 태도, 부모에 대한 역할 기대, 가정의 응집력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0.231, r=0.220, r=.159$), 부정적 대안적 해결 사고와는 가족구성원간의 태도, 가정의 응집력, 부모에 대한 역할 기대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136$, $r=-.150$, $r=-.180$).

② 가정의 심리적 과정과 긍정적 대안적 해결 사고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r=0.232$, $p<.01$), 부정적 대안적 해결 사고와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영역별로 보면 긍정적 대안적 해결사고는 성취-비성취, 개방-폐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친애-거부, 자율-타율은 긍정적 대안적 해결 사고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228$, $r=.239$, $p<.01$).

2. 결 론

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가정환경 중 가정의 집단 성격은 대인문제 해결사고에 영향을 주는데, 가정의 집단 성격이 높을수록 대인문제 해결사고가 높다. 특히 결과 예측사고에서 더 많은 영향을 주는데, 가정의 집단성격 중 가족 구성원간의 태도가 긍정적이고 가정의 응집력 정도가 응결될수록 아동은 결과예측사고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는 가족 상호간의 태도가 신뢰롭고 긍정적이며, 가족이 생활공동체로서 일체감을 가질수록 아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행동이 타인이나 자신에게 가져올 영향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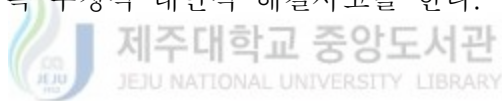
둘째, 아동의 가정환경 중 심리적 과정은 대인문제 해결사고에 영향을 주며, 가정의 심리적 과정이 높은 환경의 아동이 대안적 해결사고와 결과예측사고를 더 많이 한다.

특히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 중 친애적, 자율적 집단이 거부적, 타율적 집

단보다 대안적 해결사고를 더 많이 한다. 이는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성장한 아동이 거부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동에 비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더 잘 생각해내며,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여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가정 분위기를 조성해줄 때 아동은 대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더 많이 생각해낸다.

셋째, 가정의 집단성격과 심리적 과정에 따라 긍정적·부정적 대안적 해결사고는 상관이 있다. 즉, 부모에 대한 역할 기대, 가족 구성원간의 태도, 가정의 응집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대안적 해결사고를 하고, 낮을수록 부정적 대안적 해결사고를 한다.

그리고 가정환경이 친애적, 자율적일수록 긍정적 대안적 해결사고를 하고, 거부적, 타율적일수록 부정적 대안적 해결사고를 한다.



3. 제 언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인문제 해결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의 일부 변인에 제한하여 연구하였으나 부모의 가치관과 같은 가정환경 변인이나 아동의 정서지능, 학교 환경, 사회 환경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관계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네 하위 요인 중 본 연구에서 제외된 원인적 사고와 수단-목적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대인문제 해결사고 측정의 대인 대상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인문제 해결사고 검사는 가설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설문으로 실시하였으며, 해결방법의 질적인 측면보다는 해결 방안 수의 차이를 파악하는 양적인 측면을 검사 한 것으로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실재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앞으로 아동들이 실제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용하는 대인문제 해결방안을 실제로 관찰하고, 면접에 의한 자료를 보완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실제적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측정이 필요하겠고 해결 방안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성희(1991). 아동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적응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 해결기술의 역할.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강현심(2001).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은영(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은희(1991). 학령전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성수(1998). 가정의 과정환경 및 정의적 특성과 학업성적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남익우(1994). 사회인지훈련이 아동의 대인전략 수준과 교우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노영희(1991). 유치원 교사의 교수 전략에 따른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 능력의 비교.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문희인(1989).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와 가정환경변인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찬욱(1986). 아동의 대인문제해결사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성규현(1983). 모의 육아방식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문제해결 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경민(1998). 가정의 지위환경과 과정환경 변인에 따른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 신현숙(1986). 어머니-유아간의 상호 작용 유형과 대인문제 해결력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 오숙자(1998). 가정환경의 제 요인과 아동의 인성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화심(1994).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왕정희(2001).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 해결력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인이(1997).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력 사고의 발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영신(1992).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력과 사회성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위영희(1986). 어머니의 양육 방식과 학령전 아동의 사회적 문제해결 전략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규환(2001). 심리적 가정환경이 아동의 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남선(2000). 가정환경이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상선(1991). 어머니의 언어 형태와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선희(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계순(1994). 어머니의 언어유형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신숙(1999).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과 아동의 대인불안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원식(1983). **생활지도**.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
- _____(1989). **교육환경론**. 서울 : 교육출판사.
- 정원식, 이상로, 이성진(1983).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 교육출판사.
- 하정희(1993). **학대적 가정 환경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력 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경옥(1998). **아동의 연령과 성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미섭(2000). **가정 환경에 따른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차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Asher, S. R. (1983). Social competency and peer status : Recent advances and future directions. *Child Development*, 54.
- Bloom, B. S. (1964).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N.Y. : John Wiley.
- Coie, J. D., Coppotelli., & Dodge., K. A. (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 *A cross-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4), 557-570
- Flavell, J. (1983). The development of role taking and communication skills in children. In W.F.Overton (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Irwin, D. M., & Bushnell, M. M., *observational strategies for child study*,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0.
- Mead. G. H, (1934). *Mind, Self, & society*, (Chicago : Univ. of Chicago Press), pp.210-214
- Krasnor, L.R. & Rubin, K.H. (1981). The assessment of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in young children. *Cognitive*

Assessment, New York : The Child Press.

- Pellegrini, A.D. (1985). Social Cognition and competence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4, 253-264.
- Selman, R. L. & Demorest, A.P. (1984). Observing troubled children's interpersonal negotiation strategies : Implication of and for a developmental model. *Child development*, 55, 228-304.
- Shure, M. B, *A Problem solving model for patients and teachers of young children*, Toronto, 1978.
- Shure, M. B, & Spivack, G. (1974).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ICPS) : A mental health program for kindergarten and first grade children : Training Script*. Department of Mental Health Science. Hahnemann University, Philadelphia, PA. (Revised, 1978).
- Watson. D. (1967). Relationship between locus of control and anxie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and Their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Skills

Song Eun-Ju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ur Chul-Soo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dentify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variables that may improve children's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skills by determining if children's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is related to their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skill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et up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s. First, is children's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skills different according to the group personality of their home?

Second, is children's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skills different according to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their home?

Third, is positive/negative alternative solution thinking correlated with children's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To answer these questions and verify hypotheses, this study conducted a

* The present thesis was submitted in August 2003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 Jeju National University for a master's degree in Education.

questionnaire survey on 223 children from 6 elementary schools in Jeju City.

The assessment instrument to measure children's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was the part of the group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process of home in Jeong Won-sik's (1989) Home Environment Diagnosis Test (for higher-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ree variables, expectation for the parents' role, mutual attitude between family members and cohesion of the family were measured with regard to the group personality of home, and four variables, achievement/non-achievement, openness/closeness, acceptance/rejection and autonomy/heteronomy with regard to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home. To investigate children's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skills, this study used the Korean version of Spivack's (1976) ICPS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test) and Pellegrini's (1985) MEPS-R that modified the marking criteria and story contents of the former, both of which were translated by Yang Jin-hee (1992) and Park Hee-suk (1985) for Korean children. Alternative solution thinking and two sub-factors of result prediction thinking were tested.

After the test, the present researcher processed the results electronically, and carried out t-test to verify hypotheses.

From the processes presented above, this study drew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children's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skills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group personality of home. In particular, children's result prediction thinking varies significantly. When family members' attitudes are positive and the family is strongly cohesive, children have more result prediction thinking.

Second, children's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skills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home. In particular, children with higher psychological process of home have more alternative solution thinking and result prediction thinking. Furthermore, acceptant

and autonomous groups have more alternative solution thinking than rejective and heteronomous groups.

Third, the group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process of home is correlated with positive / negative alternative solution thinking.

That is, when expectation for the parents' role, attitudes between family members and the cohesion of family are high, children have positive alternative solution thinking, and vice versa. In addition, when home environment is acceptant and autonomous children have positive alternative solution thinking, and when it is rejective and heteronomous they have negative alternative solution thinking.

According to the conclusions presented above, children's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skills is influenced by their home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o heighten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 solution thinking, it is necessary to improve home environment factors related to the thinking.



부 록

♠ 대인문제 해결사고 측정 설문지

♠ 가정환경 측정 설문지

♠ 대인문제 해결사고 검사의 반응 범주

♠ 대인문제 해결사고 측정 ♠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질문지는 여러분들이 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시험이 아니므로 문제에 대한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평소에 행동하던 대로 적으면 됩니다.

이 질문지의 검사 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여러분의 정확하고 솔직한 생각을 써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꼭 지켜주세요 ◀

- ① 각 질문에 빠짐없이 성실하게 답해주세요.
- ② 시험이 아니므로 옆 사람의 것을 보거나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 ③ 정답을 생각하려 하지 말고 평소의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2002년 12월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송은주

▣ 자신에 대한 일반적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질문의 () 안에 ○ 하세요.

1. 성별 : 남 () 여 ()

2. 자신과 같이 생활하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모두 ○ 하세요.

아버지 () 어머니 () 언니, 누나 () 오빠, 형 ()

동생 () 할아버지 () 할머니 () 기타 ()

1. 대안적 해결사고 이야기

다음의 이야기는 여러분 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읽고 내가 이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적어보세요.

1. 수진이는 아버지가 사 주신 카세트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미도 그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수진이는 카세트가 새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 듣고 싶었어요. 영미는 그것을 듣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1>

<방법2>

<방법3>

<방법4>

<방법5>



2. 결과예측 사고 이야기

다음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문제입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읽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많은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1. 진수는 새 축구공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것으로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영철 이도 그것으로 놀고 싶어서 진수에게서 축구공을 빼앗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결과1>

<결과2>

<결과3>

<결과4>

<방법5>

<부록2>

가정 환경 측정 설문지

다음 질문의 내용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면 “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면 “아니오”, 판단하기 어려우면 “잘모르겠다”에 ○ 하세요.

문	항	예	아 니 오	잘 모르 겠다
1.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문을 빛낼 일이라면 나에게 어떤 희생이라도 요구하실 것이다.			
2.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마다 못마땅해 하신다.			
3.	우리 가족들은 자기 물건을 서로 빌리거나 빌려주기를 꺼려한다.			
4.	내 의견과 부모님의 의견이 다를 때 부모님을 설득시킨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5.	우리 가족은 자기 이외의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불평을 잘한다.			
6.	우리 가족은 대체로 가정 전체의 일보다 자기 개인의 일에 더욱 열중한다.			
7.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의 생각과 다르게 내 스스로 결정한 일은 어떤 일이고 허락 안 하실 것이다.			
8.	우리 가족들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도 가족 앞에선 거리낌없이 이야기한다.			
9.	우리 가족들은 자신의 일 이외의 다른 가족 일에는 무관심하다.			
10.	우리 부모님은 내가 진학을 할 경우 나의 의견을 제일 우선적으로 들어 주실 것이다.			
11.	우리 가족보다는 친구들이 더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다.			
12.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나 남에게 칭찬 받았을 때, 우리 가족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즐거워한다.			
13.	우리 부모님은 우리집 생활 양식과는 다르더라도 자녀들이 원하면 들어 주실 것이다.			
14.	우리 가족들은 내가 잘 못했을 경우에도 애썼다고 격려해준다.			
15.	우리 가족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을 하고 있다.			
16.	내가 하는 일이 비록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부모님은 나의 장래를 위한 일이라면 허락해 주실 것이다.			
17.	우리 가족은 서로 같이 이야기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18.	나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다.			
19.	나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도 내 개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거절할 수 있다.			
20.	나는 우리 가족들이 보기 싫어 집을 나가고 싶을 때가 있다.			
21.	우리 가족들은 자기 문제를 집안 식구보다 자신 친구들에게 의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문 항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22. 우리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 곁을 영원히 떠난다해도 내가 성공할 수 있으면 그 일에 찬성할 것이다.			
23. 우리집 분위기는 따뜻하기 보다는 냉랭하다.			
24. 우리 가족들은 사소한 일에도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다.			
25. 우리 가족들은 일에 열중하여 식사를 늦게 하는 때가 종종 있다.			
26. 우리 부모님은 힘든 일이나 운동은 다친다고 못하게 하신다.			
27. 우리 집에서는 어른들이 하는 일에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솔직하게 비평할 수 있다.			
28. 우리 부모님은 나를 너무 어린애 다루듯 하신다.			
29. 우리 가족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애쓴다.			
30. 우리 부모님은 소풍갔을 때, 산 속에 혼자 가지 못 하게 하신다.			
31. 내가 학교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우리 가족은 다 알고 있다.			
32. 우리 가족들은 아버지가 허락한 일만 해야 한다.			
33. 우리 부모님은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해주신다.			
34. 우리 부모님은 내 몸에 조금만 열이 나더라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신다.			
35. 우리 집에서는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나치게 중요시 하신다.			
36. 부모님은 옷을 사 주실 때 먼저 내 마음에 드는 걸 고르게 한다.			
37. 우리 가족은 나에게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신다.			
38. 우리 부모님은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자리에 아이들이 앉아 있지 못하게 하신다.			
39.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순순히 허락해 주신다.			
40. 우리 집에서는 남자도 여자처럼 부엌일을 도울 때가 있다.			
41. 우리 가족들은 항상 바쁘게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42. 우리 부모님은 어두워지면 위험하다고 집 앞에 심부름도 안 시킨다.			
43. 우리 가족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못 들은 척 하는 일이 별로 없다.			
44. 우리 가족은 옷을 살 때 자기가 먼저 입던 옷의 색깔과 비슷한 것을 좋아한다.			
45. 우리 부모님은 버스를 타고 가야 할 곳도 운동삼아 걸어가라고 한시는 때가 많다.			
46. 우리 집에서는 남의 집에 놀러 다니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47. 우리 부모님은 윗사람에게 말대꾸 한다고 꾸중하는 일이 대단히 많다.			

문	항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48.	우리 가족들은 자기 일을 각자가 처리한다.			
49.	우리 부모님은 나의 힘에 좀 벅찬 일이라도 해보라고 하시는 때가 많다.			
50.	우리 가족들은 남에게 물건을 빌려 주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51.	나는 가족들이 모두 밖에 나간 다음에 혼자 집을 지켜야 할 때가 가끔 있다.			
52.	우리 가족들은 한 번 놀러 갔던 곳은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53.	우리 가족은 누가 더 잘 했는지 내기를 잘 한다.			
54.	우리 가족들은 남에게 집안 일을 얘기하면 야단치신다.			
55.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라도 부모님께서 반대하면 그것을 못한다.			
56.	집안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57.	우리 부모님은 나의 학교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야단을 치신다.			
58.	우리 부모님은 물에 빠질까 걱정이 되어 내가 수영 하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59.	우리 가족은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털어놓지 않고 간직해 두는 버릇이 있다.			
60.	우리 집에서는 매일 꼭 같은 반찬을 해 먹는다.			
61.	우리 가족들은 밤 늦게까지 불을 켜 놓고 공부나 일을 하는 때가 많다.			
62.	우리 가족들은 손님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다.			
63.	우리 가족들은 어른들이 하시는 일에 아이들이 참견하면 야단을 치신다.			
64.	우리 가족들은 내가 엉뚱한 행동을 하면 바보같은 행동은 하지 말라고 야단한다.			
65.	우리 가족은 일을 시작하면 아무리 밤이 늦어도 끝까지 하는 버릇이 있다.			
66.	우리 가족들은 하고 싶은 말은 언제든 말해버린다.			
67.	우리 가족들은 모두 모여서 정답게 이야기하는 때가 많다.			
68.	우리 가족들은 어떤 일이든간에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69.	우리 가족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무슨 일이든 시킨다.			
70.	우리 부모님은 내가 혼자 어디를 가든지 별로 간섭을 하지 않는다			
71.	나는 내 문제를 가족과 의존하지 않고 나 혼자 처리하는 때가 많다.			
72.	우리 부모님은 내 마음대로 물건을 사면 크게 야단치신다.			

♠ ♡ 수 고 하 셧 습 니 다 ♡ ♠

<부록3>

대인문제해결 사고검사의 반응 범주

1. 대안적 해결사고에서의 반응 범주

반응범주		반응내용	배점
관련 해결 방안	긍정적 해결 방안	요청 나 좀 갖고 놀자. 빌려줄래? 미안하지만 같이 놀자. 잠깐만 갖고 놀아도 돼? 조금만 놀고 줄게	1
		공평 (교대로 놀이) 둘러가며 놀자. 너 한번, 나 한번 사이좋게 놀자.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갖고 놀자. “너 5분 들고, 나 5분 듣자.”	1
		공평 (함께 놀이) 한 개씩 귀에 꽂아서 같이 듣는다. “카세트 테이프하고 건전지는 내가 널 테니까 나 좀 듣자.”	1
		교환 친구에게 다른 거 갖고 놀라고 하고 가지고 논다. 내 테이프를 빌려주며 카세트를 듣게 해 달라고 한다. 친구가 보고 싶어하던 책을 빌려준다.	1
		설득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네가 조작하다가 안되면 내가 해줄게.	1
		기다림 친구가 놀고 난 다음에 가지고 논다. 줄 때까지 기다린다. 어디 다른 곳에 간 사이에 가지고 논다. “내일은 나도 들려줘” 친구가 끝까지 빌려주지 않으면 현 것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1
		심리적 자극 (칭찬) 내가 너라면 같이 갖고 놀겠어. 너, 나 좋아하지? 나도 들어봤으면 좋겠구나. 그 카세트 한번만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참 예쁜 카세트구나! 소리는 어떠니? 내 것보다 좋을 것 같은 데 한 번 들어보면 안되니? 친구의 좋은 점을 이야기한다. “야, 너 그렇게 쏠쏠하게 그럴래. 좀 들려줘라.” “착한 아이는 뭐든 나눠줄 수 있어야 하는데.”	1
		긍정적 거래 다음에 내가 카세트 사면 들려줄게	1

반응범주		반 응 내 용	배점	
관련 해결 방안	긍정적 해결 방안	친절	친구에게 잘 대해준다.	1
	유머	웃기는 얘기해요.	1	
	제3자 동의	그 친구와 친한 애에게 부탁한다.	1	
	부정적 해결 방안	신체적 공격	발길로 찬다. 주먹으로 때린다. 간지럽힌다.	1
		위협	“내가 가지고 놀거야. 아무도 못해. 안내놓으면 죽어!” “다른 애들보고 너랑 놀지 말라고 할거야.” “너 맞고 줄래? 그냥 줄래?” 친구의 비밀(약점)을 폭로한다. 친구의 별명을 부르며 놀린다.	1
		우정철회	“빌려주지 않으면 네 친구 안 할거야. 너랑 안 놀 거 야.”	1
		권위의존	선생님한테 말 할거야.	1
		소유물 손상	친구 물건을 다 부숴버린다. 카세트가 새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 듣고 싶어 하니까 헌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1
		계책(시치미, 거짓말)	선생님이 부른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친구가 나갔을 때 몰래 듣는다.	1
		뇌물	자기네 집에 초대해서 먹을 것을 많이 먹인다. 숙제를 대신 해준다. 집에 갈 때 가방을 대신 들어준다.	1
		복종	내가 이 카세트 한 번만 들어보는 대신에 오늘 하루 너의 하 인이 될게 네가 시키는 일 뭐든지 다 할게	1
		부정적 거래	있다가 뭐 사줄게 예전에 빌린 돈 안 갚아도 되니까 한 번만 들려줘	1
		훔치기	몰래 가서 갖고 온다. 용기가 없어 말을 못하고 훔친다	1
	빼앗기	빼앗아 도망간다	1	
떼쓰기	떼를 쓴다. 조른다. 빌려달라고 진드기처럼 붙는다.	1		

2. 결과예측 사고에서의 반응 범주

반응 범주	반응 내용	배점	
관련 해결 방안	양보	빌려주겠다고 한다. 그 친구가 한 번만 가지고 놀라고 한다. 친구가 그냥 가지고 놀게 내버려둔다.	1
	공평제안	같이 갖고 놀자고 한다. 하루만 교대로 사용하자고 한다. 친구에게 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갖고 놀자고 한다. 친구가 시간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갖고 놀자고 한다.	1
	심리적 자극	화를 돋구도록 별명을 부른다. 좋은 말로 도로 달라고 한다.	1
	기다림	줄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 안 놀 때 갖고 논다. 조금 있다가 주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둔다.	1
	회피	모른 척한다. 아무말도 못하고 그냥 가 버린다.	1
	저항	노려본다. 억지로 뺏긴 것이므로 울 것이다.	1
	화냄	“왜 달란 말 안하고 뺏어가니?” “빼앗아 가지마”	1
	위협	너 나쁜 애라고 소문낼 거야. 너 맞기 전에 빨리 줘.	1
	신체적 공격	도로 잡아채요. 주먹으로 한 방 쳐요. 친구에게 마구 덤벼 크게 다친다. 친구를 때려서 둘이 싸웠을 것이다. 끝까지 쫓아가 빼앗는다.	1
	권위 의존	엄마(선생님)께 이른다.	1
	소유물 손상	옷을 찢어 놓는다. 필통을 망가뜨려 놓는다. 책상을 칼로 긁어 놓는다. 친구의 배구공을 못 쓰게 만든다. 친구의 공을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 잃어버린다.	1
	우정 철회	“너하고 친구 안 할거야. 너랑 안 놀아” 그 친구와 놀지 않고 다른 아이와 어울려 다니며 공을 빼앗은 아이를 따돌린다. 친구와의 사이가 나빠진다.	1
	교환제안	다른 물건과 바꾸자.	1
	포기	공을 빼앗긴 아이는 울면서 집에 간다. 공을 빼앗은 아이가 힘이 더 세어서 가만히 있다.	1
반환	놀고 다시 공을 돌려준다.	1	
설득	공을 빼앗은 친구에게 가서 공을 돌려 달라고 애원한다.	1	